



‘신뢰와 소통’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고리원전

지난해 6월 영구정지에 들어간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를 비롯해 신고리2호기에 이르기까지 총 6기의 원전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노기경 본부장, 이하 고리본부).

지난 40여년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노력해온 고리본부가 이번엔 지역주민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기 위해 복지와 문화 및 교육 지원사업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노기경 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주변 농가의 피해현장을 본 후 현장 방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현장의 피해 상황이 미디어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노 본부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매주 자매마을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매마을은 본부 내 각 팀이 발전소 인근 마을과 밀착형 결연 관계를 맺은 마을로 그 수가 51개에 달한다.

노 본부장은 지난해 7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최북단 신명마을을 시작으로 지난 8월 28일 일광면 최남단 학리마을까지 빠짐없이 돌며 간담회를 진행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본부의 주요 현안과 발전소 운전현황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중 실행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했다.

올여름에는 장안읍 좌동마을에 연이은 불볕더위로 힘들어하는 지역주민이 많다는 고충을 접하고, 바로 에어컨을 지원해 마을 어르신들이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시설물 보수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고리본부는 노 본부장 취임 후 수요자 맞춤형 사회공헌프로그램 개발에도 정성을 들이고 있다.

고리본부 직원 1천467명으로 구성된 고리봉사대는 총 6개 분야, 30여가지로 구성된 수요자 맞춤형 봉사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캠페인', 어르신들의 따뜻한 식사를 책임지는 '중식나눔 및 이동호드림 봉사', '장애우 초청 나눔실천 봉사' 등 주민들에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농번기 일손돕기, 마을 행사, 불편사항, 재해복구 활동 등 마을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활동에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민들레흙씨기금'이 투입된다.

'민들레흙씨기금'은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적립해 조성하는 러브펀드와 이에 비례해 사측에서 적립하는 매칭그랜트가 더해져 조성된 기금으로, 지난해에만 약 3억5천여만원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쓰였다. 최근에는 원전 운영 정보와 자연재해 정보를 제공하는 '고리본부 SMS알리미'가 회원 수 1만 명을 돌파했다.

'고리본부 SMS알리미'는 지진,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발전소 상황 및 정비, 고장, 훈련 등의 원전 주요 정보를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보공개 서비스다.

올 한해 '포항 지진 발생 시 발전소 안전 현황', '신고리2호기 발전재개', '2발 방사능 재해훈련 안내' 등 매월 2~3회, 약 20여 차례의 재난 예방 및 원전 운영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고리본부 SMS알리미'는 지난해 1월 노기경 고리원자력본부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노 본부장은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51개 자매마을을 순회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고리원전본부는 주변 지역마을회관, 노인정 등 다중 장소 곳곳을 찾아다니며 문자알림서비스를 홍보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펼쳤다.

또 지역 내 문화행사와 연계해 공연장에 홍보부스와 배너를 설치했다. 적극적인 가입 홍보 활동을 꾸준히 펼친 결과, 올해만 약 3천여 명의 지역주민이 '고리본부 SMS알리미'에 가입하는 성과를 올렸다.

노 본부장은 "앞으로도 고리본부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안전한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공익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고리본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수원이 가장 잘 하는 일, 바로 에너지 채용입니다

원자력,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 연료전지까지 -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무엇과도 함께 해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에너지가 가능해질까요?
한국수력원자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를 기대하세요.
종합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

